

08. 『격몽요결』

율곡이 42세 때 선조 10년, 즉 1577년에 쓴 책이다. 이해 3월에 그는 부제학을 사퇴하고 파주 율곡마을로 돌아왔다. 그 뒤 10월에 해주 석담(石潭)으로 가서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때 지은 책이다.

율곡은 『격몽요결』 서문에 당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해산(海山)의 남쪽에 있을 때 한두 학생이 찾아와 학문을 물었다. 내가 스승이 될 만한 게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처음 학문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모르고, 굳은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배우겠다고 한다면 피차에 도움 될 것이 없고 도리어 남의 조롱만 사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간략하게 책 한 권을 써서 마음을 세우고, 몸가짐을 단속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간단히 서술하여 『격몽요결』이라 이름하였다. 학생들이 이것을 읽고서 마음을 씻고 즉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자 한다. 나 역시 오랫동안 구습에 얽매어 괴로워하던 차에 이것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정축년 12월 덕수(德水) 이이 씀.”

‘격몽’이란 몽매함을 깨우친다는 뜻이며 ‘요결’은 그 일의 중요한 비결이란 뜻이다. 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학(道學)의 입문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이후에 여러 번 출판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훈몽자회(訓蒙字會)』 등과 함께 널리 읽혔다.

『격몽요결』은 다음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우고 깨우쳐야 할 10가지 덕목을 총 10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제1장 입지(立志)
- 제2장 혁구습(革舊習)
- 제3장 지신(持身)
- 제4장 독서(讀書)
- 제5장 사친(事親)
- 제6장 상제(喪制)
- 제7장 제례(祭禮)
- 제8장 거가(居家)
- 제9장 접인(接人)
- 제10장 처세(處世)

이 책의 끝에는 사당도(祠堂圖), 시제도(時祭圖), 설찬도(設饌圖)와 제의(祭儀)의 출입의(出入儀), 참례의(參禮儀), 천헌의(薦獻儀), 고사의(古事儀), 시제의(時祭儀), 기제의(忌祭儀), 묘제의(墓祭儀), 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 첫 부분에 율곡은 학문의 목적, 즉 글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른바, 학문이란 것은 역시 이상스럽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아비 된 자는 자애로워야 하며, 자식 된 자는 효도해야 하고, 신하 된 자는 충성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로워야 하며,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에 따라 각기 마땅한 것을 취할 뿐이요, 현묘한 것에 마음을 두어 기이한 것을 노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문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꼭 막혀 있고 식견이 좁기 때문에 모름지기 글을 읽고 그 이치를 연구하여 행해야 할 길을 밝힌 뒤에야 학문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을 얻고 실천함이 합당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은 모르고 망령되게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고 자기는 자포자기하니,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현묘하고 기이한 것을 배우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취해야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학문이라고 하였다. 즉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연마하는 구체적인 수신(修身)의 방법이 학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문이란 현대적인 의미로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아니라 ‘글을 읽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문의 요체를 율곡은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